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교회의 역할

The Role of Church in the Religious Pluralism

이병수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242
2. 종교연구의 필요성 | 245
3. 복음과 다원주의 | 247
4. 복음과 포스트모더니즘 | 251
5. 현대정신: 인간 자유 | 254
6. 종교신학연구의 중요성 | 256
7. 자성과 회개 | 259
8. 결론 | 260



Abstract

The Role of Church in the Religious Pluralism

Lee, Byung-soo (Kosin University)

At the macro level, religion implies that religion will be more vibrant where it is less regulated and hence more competitive. Recent attempts to support this hypothesis are weakened by the use of religious pluralism as a proxy measure for the extent to which the religious market is subsidized or regulated. This article extends the analysis of religious market structure by measuring directly the regulation of religious markets in 18 Western democracies. The analysis provides strong support for the hypothesized connection between religious competitiveness and vitality. The results show that (a)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idized religion and religious participation holds in both Protestant and Catholic countries and (b) its explanatory power is far superior to that of religious pluralism alone. However, certain features of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conomics of religion” should be supplemented with noneconomic variables to achieve adequate sociological explanation.

Key words | Pluralism, Gospel, Religion Theology,
Religious Pluralism, Truth

1. 서론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를 종교로 보았다. 아니 돈 되는 경제, 과학, 산업이 아니라, 종교라면 이상한 것 아닌가? 종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역설적일 수 있다. 이유는 세속화된 현대는 종교의 영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심지어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것들이 종교 대신에 그 자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종교적 ‘무엇’ 혹은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세속도시와 도시선교 연구에 학문적 공헌을 끼친 하비 콕스(Harvie Cox)¹⁾ 및 하비 콘(Harvie Conn)²⁾은 이렇게 세속화된 도시에 신을 찾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세속화된 도시가 선교의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종교적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더니즘적 요소들이 붕괴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더니즘의 특징인 계몽주의의 이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에 의하면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절대적 지로서의 이성 만능주의 시대가 양차대전을 겪으면서 이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신뢰가 무너지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한다. 긍정적 요소로 이성의 한계와 역기능적인 것에 대한 탈피 및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 종교적인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종교에 귀의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1) 『세속도시』 하비 콕스 이상을 대한 기독교서회.

2) 현대도시교회의 선교적 전망 하비 콘 한화룡 역 여수문.

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종교학자들은 세속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양한 종교들의 요소가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³⁾. 특히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의 시대 즉 이성 지상주의에서 1, 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이성이 가장 찬란하게 구현된 서구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의 학살을 자행한 것을 경험 한 뒤 이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이성 이외의 다른 무엇을 찾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이 주는 긍정적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부정해서 안 된다. 예를 들면 합리성 등.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갈급한 가운데 동양의 신비종교들이 그것을 메워가는 경향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의 예로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적 감성·영성·초월적 신비등과 뉴에이지 운동에서 종교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의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 그의 신학에 동의할 수 없지만 쉘라이에르마허가 그의 책 『종교론』에서 종교를 비방하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해 종교론을 기록했듯이 오늘날 기독교를 비방하고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종교적 갈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성경적·복음적·종교철학적 접근을 위해서도 종교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다원주의 및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교회와 신학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변증적 설교 및 신학이다. 복음의 선포적 신학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변증적 설교 및 선교도 필요하다. 존 스토트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⁴⁾에서 사도바울이 방문한 아덴, 에베소 및 중요도시를 방문한 것에 대해 도시 복음화에 대한 바울의 선교전략으로 묘사했다. 사도바울이 세속적 장소들을 택한 것⁵⁾은 복음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접의 작은 도시로 방사상형으로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3) 베르카일의 『현대선교신학』 최정만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땅끝까지 이르러』 존스토티 정옥배 역 IVP.

5)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폴런드 앨런 홍병룡 역 IVP(사도바울이 도시를 전략적으로 염두에 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 학자로 폴런드 앨런.

인도하심이 결정적이다.

다음으로 스토트는 사도바울이 전도할 때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늘날의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 하여 복음을 제시”⁶⁾했다고 한다. 그 의미는 사도바울의 전도적 설교가 변론하고 논증하고 설복하는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는(*arguing persuasively*)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사도바울의 논증처럼 변증적 설교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겸손과 사랑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말이다. 사도바울의 이 변증적 모습을 선교학에서 살펴보자

그 예로 복음주의 선교학자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뉴비긴(*Leslie Newbigin 1909-1998*)⁷⁾을 들 수 있다. 그는 신실한 성경의 사람이지만 서구의 현대사상에 능통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그 시대에 서구의 이교적 사상에 대응해서 복음을 진실하고 논리적으로 잘 증명하였다.

뉴비긴보다 앞선 세대에 속하는 폴 킬리히(*1886-1965*)의 신학도 현대철학 및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신학적 답을 주려는 노력과 시도들이었다는 점에서 넓게 말해서 변증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변증적 노력의 모습을 그의 신학 방법론 즉 상관관계성의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폴 킬리히의 상관관계성의 신학이란 철학이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성경적·신학적 답을 제시하는 변증적 역할을 잘 활용했던 것이 상관관계성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의 이러한 변증적 성격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방법적으로 보면 폴 킬리히와 레슬리 뉴비긴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신학적 방법이 철학적 신학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철학적·신학적·선교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위의 책 371.

7) 영국의 성공회 신학자.

2. 종교연구의 필요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충돌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를 종교로 보고 있다. 종교가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엄청난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밀리오리는 역사는 “모든 종교가 선뿐 만 아니라 악을...증진”⁸⁾ 시켰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종교 간의 충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발칸 반도에서 일어났던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체첸과 러시아의 충돌 등은 인종적 갈등의 요소도 있었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었다.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인종청소라고 할 수 있는 아르메니아의 학살 사건은 터키가 자행한 엄청난 만행이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오랫동안 아르메니아 정교회와 이슬람의 충돌도 그 중의 하나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특히 남수단과 북수단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의 힌두교와 이슬람의 충돌들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도리어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사회가 어떻게 종교 간의 피와 전쟁의 역사를 종식할 수 있는가가 21세기의 시대적 화두이다.

종교적 충돌을 좀 더 살펴보면 카슈미르지역에서 이슬람과 힌두교 간 충돌, 그리고 사무엘 헌팅턴의 지적처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종언 이후 ‘문명의 충돌’ 혹은 ‘종교 전쟁’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에 IS(Islam State)가 주둔하면서 많은 이라크 기독교들을 박해 및 살해하기도 하고 특히 이집트의 기독교도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한

8) 밀리오리 495.

것도 종교충돌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 파리에서 일어났던 무슬림 교도들의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에 대한 테러⁹⁾ 등 종교 간의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연구의 필요성은 세계화와 세계인구의 이주 가운데 접하게 되는 다양한 종교인구들 때문이다. 북아프리카와 터키에서 유럽으로 이주해온 수많은 이주자로 말미암아 유럽은 이슬람 화 되어져 가고 있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 도시인 벨기에 브뤼셀은 신생아의 40%가 아랍인이라고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외국인이 약 5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의 마르세이유라는 도시의 반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고 특히 교회는 노인들 몇 사람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한쪽에서는 유럽의 무슬림화 와 다른 쪽에서는 세속화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 가는데 영국의 축구장은 관중들로 미어터지는 현실이다.

한국도 김해에는 인구 50만 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5만 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경기도 안산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곳이 김해라고 한다. 필자가 김해중앙교회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김해지역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무슬림들이 가장 종교생활에 적극적이고 심지어 무슬림의 기도처소를 확보하고 종교지도자 이맘(아랍어: إمام, 페르시아어: امام 이슬람의 종교지도자)을 초대하고 무슬림 교도들이 모은 현금으로 김해에 모스크를 세울 계획이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종교 및 기독교와 타종교 연구로서 종교 신학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할 때 상대주

9) 필자는 무슬림들의 프랑스 잡지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잡지사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타종교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 세계의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식인들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의 먼저 언급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다룬다. 따라서 상대주의를 먼저 살펴보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부인한다. 하지만 상대주의를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문화 상대주의는 그동안 서구의 문화가 가지는 우월의식에 대한 거부와 서구사회의 자기 반성적 노력가운데 서구이외의 타문화를 존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문화가 가지는 고유한 성격 및 특징을 존중하고 모든 문화를 그 문화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보는 시각들로서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고 따라서 기독교와 같이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성경적 종교관과 신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다원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다.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둘째, 세계화로 다양한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접하는 상황 그리고 많은 종교신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다양한 신학자 및 선교학자에게서 답을 찾고자 한다.

3. 복음과 다원주의

다원주의 시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가 오늘날의 신학적 화두이다. 그것이 서구이든 한국이든. 한국에서도 다원주의적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기독교 학문동우회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일어났다. 고신대 학교법인 이사장이며 서강대 명예교수로

일하는 강영안 교수, 총신대 신국원 교수, 그리고 합동신학원대학교에서 일하는 이승구 교수 등 그 외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풀러신학교의 리차드 마우(Richard J. Mouw)¹⁰⁾는 그의 책 『무례한 기독교 Uncommon Decency』에서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그는 다원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타종교 및 비기독교들에게 교양 있는 기독교인 될 것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타종교에 대한 예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우는 그 책에서 기독교 확신이 차 있는데 교양이 없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교양은 있는데 기독교적 확신이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이상형으로 “기독교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다원주의적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적 진리의 확신에 차 있으면서 어떻게 교양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시대이다.

이런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 앞에서 언급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다. 그는 다원주의적 사회 특히 서구문화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평생 연구해 왔다. 뉴비긴이 저술한 그의 책 많은 부분에서 다루는 의제는 ‘복음과 서구문화의 관계’이다. 이 의제가 그의 신학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그가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겪었던 경험의 충격 때문이었다. 1974년 인도에서의 35년간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뉴비긴은 영국이 선교지 보다 더 ‘이교적인 사회’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남은 생애는 선교지로서 영국과 유럽의 선교사로 다시 일하게 된다. 이 충격으로 그는 서구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적인 분석적인 질문들을 제기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다. 특히 그는 서구인들이 어떤 시대적 사상에 물들여 있는 지를 알기위해서 성경 외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 및

10) 리차드 마우는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윤리학자였다.

시대정신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의 저술들의 참고도서를 보면 그 시대의 중요한 철학적 저작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뉴비긴은 서구문화에 대한 복음적·선교적 차원의 긴급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근대 서구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계속 움츠러들고 있으며 복음은 쇠귀에 경 읽기 식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학자의 연구 과제 가운데 복음과 서구 근대 문화가 선교적 차원에서 마주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 없다.”¹¹⁾

이러한 상황 가운데 뉴비긴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서구문화에 대한 신학 및 선교학의 변증적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지적한다. 첫째, 수많은 선교학적 저술이 제 3세계의 선교지를 위해서 이루어진 반면 “현대 문화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문화, 이른바 내가 근대 서구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대체로 무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문화야 말로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복음에 대해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다.”¹²⁾

뉴비긴의 이와 비슷한 경험을 영국의 작가가 잘 설명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을 심미(審美)성의 관점으로 설명한 영국의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 1893-1957)는 그녀의 책 『창조자의 정신 The Mind of the Maker』에서 그의 작품이 호평을 받자 그녀에 대한 영국 언론의 보도가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고백하면 당장 박해라도 받는 듯이 ‘용기 있는 신앙고백’이라 해석한 신문들도 적지 않았다”¹³⁾고 고백한 적이 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박해를 받는 다는 것과 그것을 용기 있는 신앙 고백으로 여긴다는 것이 영국사회가 얼마나 비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이고 세속적이라는

11) 『Foolishness to the Greeks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역 11. 이 책이 다루는 의제는 복음과 서구문화이다.

12) Ibid. 11.

13) Ibid. 13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이다.

뉴비긴이 겪은 이 경험은 그가 활동하던 1970-2010년 시대 보다 오늘날 유럽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뉴비긴이 겪었던 복음에 대한 저항은 영국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선교사를 파송했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영국과 같이 서구화·세속화·신의 부재와 같은 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기독교회들이 유럽을 재복음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유럽에 약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미국에 살았던 영국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프랑스계 미국인, 이탈리아 계 미국인들이 자기 조상의 나라로 선교를 하러가고 있다. 특히 유럽이 세속화 및 이슬람화 되어가는 과정에 복음 선포의 긴급성은 더 없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한 국내교회와 선교단체의 노력과 이를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교회의 대표적 교회는 영국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를 재정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을 다시 재복음화 할 필요가 절실하다.

앞에서 언급한 유럽이 세속화 되어져 가듯이 더 빠른 속도로 세속화 되어져 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그 한 예로 한국도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가장 많이 서구화·세속화된 국가이다. 서구 문화가 지나온 과정을 한국도 포스트모더니즘을 겪으면서 이런 정신에 무장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상에 저항해서 안티 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 기독교적 운동은 기독교의 도덕적·윤리적 잘못에 나온 비판적 측면도 있지만 이 시대의 반 기독교적 사상과 정서도 한 몫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교회역사 가운데 교회의 증거는 언제나 다원주의적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났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다원주의는 종교적으로나 진리에 있어서나 절대적 종교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다. 기독교의 유일성, 궁극성 및 혹은 독특성을 강조하면 그것은 독단이요 독선이요 종교적 제국주의라 치부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4. 복음과 포스트모더니즘

여기서 오늘날 논의 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특징은 다름과 차이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부정 및 관용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사상의 대표적 학자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¹⁴⁾가 단언한 것처럼 “다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세련되게 다듬어주고,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한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레온 크리어(Leon Krier)가 언급한 것처럼 ‘모더니즘이 무의미한 획일성’과 ‘획일적인 무의미성’을 양산했다면 모더니즘 시대 이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이후 진리나 어떤 권위를 억압으로 평가되는 시대이다. 이런 사상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진리라는 관념이 잘해야 착각에 불과하고 나쁘게는 억압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특유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¹⁵⁾.

엘런 블룸은 『미국정신의 종말』에서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관용의 부재다. 상대주의는 개방성에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많은 철학자들이 오늘날 “관용과 개방성 같은 기준들이 진리보다 더 높은 비중에 두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로스는 그러

14)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포스트모던적 조건 La Condition Postmoderne: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1992』이현복 옮김 서광사에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 표준화 되었다. 물론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15) 맥그라스.

한 사상을 “한마디로 지적인 천박성과 도덕적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 하면서 그는 “처음이자, 가장 근본 되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 진리인가? 믿고 신뢰 할 만한가? 가 되어야 한다”¹⁶⁾고 주장한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의 지적인 두 기둥으로 간주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강자의 이익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푸코는 이성보다는 감성, 원칙보다는 연민에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상 노선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인데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진리다.”¹⁷⁾

진리를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가운데 남은 것은 무질서와 혼돈이고 인간자유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방기하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쯔¹⁸⁾(Michael Waltzer)는 “이들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부정부주의자”로 그들을 규정했다¹⁹⁾. 오늘날 이러한 극단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성경의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찾아볼 수 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21:25).

하지만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원주의적 시대에 다양성과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기독교 문화인류학자들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를 허용하되 그것이 성경적 절대주의 안에서 허용할 것을 강조한

16) Ibid. 209.

17) Ibid. 212.

18) 칼빈주의적 철학자로 하바드에서 가르쳤다. 그의 책 중 청교도 연구인 『성도의 혁명 (The Revolution of Saints)』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대표적 신 칼빈주의 철학자 윌트 스트로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또한 관용의 연구에 대가이고 특히 『미셸 푸코의 정치(The Politics of Michael Foucault)』에서 지금까지 나온 푸코의 도덕 및 사회사상을 분석한 글들 가운데 가장 예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19) Ibid. 215.

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를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상대성은 존중하되 종교적 다원주의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원주의가 가지는 긍정적 요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자. 오늘날 우리는 다원적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다원적 의미가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 첫째로 긍정적인 것은 세계화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접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다. 식민지 제국주의로 19세기와 20세기는 서구 열강의 제 3세계의 정복 가운데 서구문화는 우월하고 3세계는 열등하고 미개하고 야만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처절하게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문화를 역사적 특수한 상황가운데서 생겨난 의미 있는 문화로 보는 문화 상대주의가 발생하였다.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공헌하였다. 독일계 미국학자였던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문화인류학자로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프란츠 보아즈(Franz Boaz)²⁰⁾는 문화의 역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만연해 있던 진화론에 근거한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사상을 비판했다. 진화를 야만-미개-문명의 단계를 주장하면서 야만은 아프리카, 미개는 아시아, 문명은 서구사회로 생각하는 관점을 비판했다. 모든 문화는 우월과 열등을 가리기 보다는 그 문화가 발생한 역사적 특수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 살펴 보아야함을 주장함으로 비서구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구조주의 대표적 사상가요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는 「야생

20) 보아즈의 제자로서 유명한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문화인류학의 탁월한 저작인 국화와 칼 문화의 형태로 국화와 같은 문화인류학의 고전으로 일본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끼쳤다. 문화와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는 초기 미국의 인류학을 이끌어 갔던 대표적 인물들이다.

의 사고」에서 모든 문화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서구의 자민족 중심주의 및 우월주의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이라는 책으로 서구우월주의 철저히 비판했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ide)등이다.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적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게 만든 역사적 사실들이다.

다원주의의 부정적 측면은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고 특히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면서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현대정신: 인간 자유

뉴비긴은 그의 저작들이 당시의 철학적 과학적 저술들과 씨름하는 가운데 나온 신학적 선교학적 저술이 많이 있는데 근대의 시대정신을 권위를 의심하는 가운데 생겨난 자유라고 간파했다. 그에 말에 따르면 “근대가 신의 권위를 의심하게 된 현상은 인간이 자유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된 일종의 저항이었다.”²¹⁾ 이 사상은 서구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서구의 현대정신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유이다. 이 자유의 추구가 그리스의 대표적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 『그리스인 조르바』이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 령 크레타 섬에서 출생하여 24세 때 파리에 유학해서 소르본 대학에서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된 베르그송 철학을 공부하고 그 때 니체작품 탐독했다. 무덤에는 그의 소망대로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²²⁾

21)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옮김 IVP 85.

22) 위의 책 421.

미국의 작가로서 『분노의 포도』의 존스타인 백은 “카잔차키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의 하나이다.” 노벨 문학 수상자인 알베르트 카뮈는 “카잔차키스야 말고 나보다 백번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를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 여러 곳에서 부처가 언급되는데 카잔차키스는 “니체가 최후의 인간이라 부른 부처에게서 인간을 속박하지 않는 지상의 신을 찾았던 것이다.”²³⁾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의 지적 모습은 책방에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서점에 출판된 책들을 보면 철학 및 사상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작들은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에 관한 저작들이 가장 많다. 어느 책방을 찾아보아도 니체에 대한 저작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니체의 영향 하에 프랑스 학자들 푸코·라캉·데리다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불어권 대표적 철학자들이다.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시작하는 인물로 니체로 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의심의 대가들로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로 보고 있다. 이런 니체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20세기 대표적 철학자인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의 저자인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도 니체에 대해 두 권의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

특히 프랑스가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깊이 받고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요한네스 힐스베르거는 프랑스가 가지는 종교와 철학에 대한 급진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영국의 계몽주의보다 급진적이다.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무신론과 유물론이 날카롭게 번져나갔다.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조용한 비판대신에 그리스도교를 개선하기보다 제거하려는 신랄하고 불손한 태도가 나타났다. 정치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혁명을 외치며 혁명에서 이득을 보는

23) 위의 책 413.

자들이 자기들이 내건 표어의 의심스러움도 알지 못하면서 혁명을 해 나갔다. 모든 것이 다 이성과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였다”²⁴⁾. 이런 배경 하에서 프랑스 학자 미셸 푸코와 자크 데리다 등은 전자는 ‘진리란 억압으로’ 모든 것을 해체로 주장하는 철학자이다. 이런 영향이 직간접으로 한국사회에 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어느 젊은 기독교 사역자는 오늘날 지성의 전당이라는 한국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를 받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할 까봐 눈치를 보아야 할 상황이고 복음의 대상자 입장에서라도 그들을 잡상인으로, 무관심 하거나 혹은 귀찮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것은 뉴비긴이 표현한 것처럼 한국사회도 복음에 대해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

6. 종교신학 연구의 중요성

종교신학 연구의 중요성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다. 천주교 진영에서 풍부한 연구와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이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종교신학이라고 한다. 종교신학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기독교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배타주의가 있다. 대표적 인물로 이 논문에서 많이 언급한 레슬리 뉴비긴이다. 포괄주의는 배타주의와 다원주의를 포함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칼 라너(Karl Rahner)를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학자로는 존 히크(John Hick)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는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다. 초대 기독교 교부들

24) 요한네스 힐스베르거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344.

이 그리스 철학과 종교와 논의하고 지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변증가라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터툴리아누스와 어거스틴이 출현했다. 이런 기독교와 철학 및 타종교와의 관계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중세와 종교개혁시기에는 기독교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타종교와의 접촉이나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교도 논박』에서 그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게 전도하는 법을 소상하게 다루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시기에 와서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슬람의 종주국 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 콘스탄티노폴을 함락한 후 동로마 및 서로마에 위협이 온 가운데서 투르크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취했다. 루터가 저술한 책들의 제목들은 『터키 사람들에게 맞서는 전쟁에 대하여(Vom Kriege wider die Turken)』, 『터키사람에게 맞서는 군대설교(Ein Heerpredigt wider die Turken 1529)』²⁵⁾. 카톨릭 신학자 한스 쾅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슬람에 의한 군사적 위협 때문에,... 루터는 모든 무슬림과 터키 지배자들을 사탄의 종으로 악마화했다. 무함마드는 이 마지막 때에 정욕에 이끌려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이비 예언자요 이슬람은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적그리스도라고”²⁶⁾ 보았다. 이런 전통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도 주인공 오셀로가 터키인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인물도 있었다. 스페인 출신 선교사 레이몬드 룰(1232-1361)²⁷⁾은 200년 동안 계속 되었던 십자군 전쟁(1095-1291)이 한창이던 때 이슬람 선교를 마음에 품고 아랍어를 9년 동안 공부하고 아랍어로 된

25) 한스 쾅 이슬람 1161.

26) 한스 쾅 이슬람 51.

27)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있다. 첫째는 영국의 프란체스코파 수도사로서 백과사전적 지식을 소유했던 교양인 로저 베이컨이다. 그는 특히 아비센나(이븐 시나 Iben Sina)에게 영향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아랍학 연구에 뛰어 들었다.

신학적이고 변증적인 저술들을 약 60권이 남겼다. 그는 성경적 선교적 방법으로 변증적 설교와 문서 사역 그리고 복음적 지도자 양성이었다. 그는 십자군 전쟁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진정한 선교는 “나는 많은 무장한 기사들이 성지를 다만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바다를 건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파괴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나는 성지회복은 사랑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눈물과 피를 쏟아 부음으로써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²⁸⁾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이슬람 선교의 나라인 튀니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오늘 우리가 그의 선교방법을 배워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에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변명할 수 없다. 특히 칼빈은²⁹⁾ 종교개혁에 진력하느라 이슬람과 선교에 적극적 연구나 실천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8)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선교사 열전 루스 터커 지음 박해근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61.

29) 그러나 칼빈이 선교에 관심과 선교적 개념은 있었지만 실천은 그 당시 천주교 세력과 제해권을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서 해외선교가 어려움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선교적 개념을 후기 칼빈주의자들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서 발전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윌리엄 케리도 그의 칼빈주의자로 선교에 영향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7. 자성과 회개

종교 신학을 다룰 때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가 저지른 악에 대해 먼저 자성과 회개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다. 여기서는 밀레오리와 한스 쾨링의 입장을 살펴본다. 전자는 개신교 신학자이고 후자는 천주교 신학자이다. 밀레오리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무수한 추악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중세의 잔인한 십자군 운동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다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수백만 아프리카인을 노예화하고 북미의 토착민을 학살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십자가의 표식 아래서 남미의 수많은 토착민을 살해했다. ...6백 만 명의 학살 사건은, 수세기 동안 유대인을 경멸하도록 가르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다”³⁰⁾.

한스 쾨링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지적한다. “산상수훈의 예수 비폭력을 선포한 예수, 자기 권리의 포기과 원수 사랑을 선포한 예수가 과연 그런 십자군 전쟁을 허용했을까?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거룩한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 문양을 십자군 기사들의 옷에 달아놓아 유혈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니, 이는 십자가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가?”³¹⁾ 특히 십자군이 저지른 만행으로 증오하는 이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런 자성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 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핸드릭 크레머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한 태도로서 “단호한 대담성과 철저한 겸손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룬 태도”를 가져야

30) 위의 책 500.

31) 위의 책 1048.

함을 강조했다. 선교사의 인격이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보았다.

8. 결론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래스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서구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다문화주의의 자극을 받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³²⁾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앞의 과제는 다양한 신학적 연구들과 함께 종교 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종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종교 신학의 세 가지 유형 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칼 라너의 사망이후 포괄주의를 삼위일체론적 신학으로 타종교를 연구하는 벨기회 카톨릭 예수회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 마크 하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기독교 종교 신학의 열쇠로 간주한다”³³⁾.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는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세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직면하는 현실이다. 밀리오리는 바른 종교 신학은 그 어떤 종교를 ‘신성화’ 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종교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타종교를 신성화보다는 악마화 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이슬람의 알카에다와 최근의 IS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악’으로 규정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보수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자랐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명명하면서 거룩한 전쟁으로 이라크와 싸워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였지만 전쟁의 명분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전호진은 유럽의

32) 위의 책 1080.

33) 밀리오리 520.

선교가 앞 선세기에 “타종교를 정복하고 파괴해야 할 우상과 미신으로 간주하였다.”지적했다. 하지만 20세기에 와서 상황은 급변한다. “서구선교는 선교회의 때마다 타종교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 현대 선교신학은 종교 신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선교를 담당해야 할 한국교회는 타종교가 선교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난제이다”.³⁴⁾ 이 종교연구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다. “정치 경제 문화 통신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척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은, 국내외적 긴장과 갈등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 요인의 중대한 비중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예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종교 신학의 발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실제적이고도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³⁵⁾

34) 바빙크 책 1역자의 서문에서.

35) 위의 책 494.